

“ 예수님은 좋는데 교회는 싫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참으로 비논리적·비신앙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주 들을 수 있는 소리라면 통곡할 노릇이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분리시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현실을 오래전에 이미 직시하시어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낭비하시는 사랑을 보여 주신 이 비유를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문에 탕자라는 말은 없다. 이 비유에서 주연을 찾는다면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비를 향하신 무모한 은혜로 사랑을 낭비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한편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행하고 도덕적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먼 것, 아량이 없는 좁은 마음, 자칭 의인됨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들 자신의 영혼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멸케 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둘째 아들에 대한 조건없는 사랑 즉 값싼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오늘날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죄와 구원에 대한 생각에 주님이 도전을 하신 것이다. 그의 비유는 둘째 아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부수고, 큰아들의 도덕적 삶을 자랑하는 것도 저주하신 것이다. 비종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모두 영적으로 잃어버린 모습이고, 두 사람의 가는 길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인간의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아닐까?

두 아들은 오늘날 우리 중에 있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편도 아니시다. 비종교, 무종교의 편도 아니시고 죽은 종교인, 종교적 도덕주의자 편도 아니시다. 기독교가 처음 세상에 알려질 때 종교적이라 불리우지 못했다. 성전도 제사장도 없었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무신론자라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고 교제한 이들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닌 간음한 여인, 이방인, 세리 등이므로 맏아들 같은 이들이 아니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만났던 비종교인보다 규격품 크리스천을 선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고 한다.

잃어버린 두 아들들

둘째 아들은 “내게 돌아올 아버지 분깃을 주소서” 했다. 당시 사회관습으로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속이 가능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아들의 요구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림은 ‘비오스’인데 생명을 뜻한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생명 같은 것을 나눠 준 것이다. 이 재물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탕진하여 먹을 것이 없어 헤매다가 아버지 집의 종도 아닌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고 돌아온다. 공동체의 규정을 깨트린 자는 사과만으로 충분치 않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 찾아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청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다. 살ئن 송아지를 잡고 이 기쁨을 가족과 마을 전체가 축하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 회복,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이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고백을 받은 후에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에게 무모하게 은혜를 허비하신 것이다.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의 잔치를 비난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고 맏아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아버지를 슬프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모할 정도로 사랑과 은혜를 낭비하여 두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께 호도하므로 아버지를 컨트롤하여 상속을 많이 받았다는 뜻으로 맏아들같이 충성 아닌 충성을 하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맏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신 아버지의 주권적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잔치는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다. 여기서 신부는 정혼한 교회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446호] 2015년 2월 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Mrs. Lumie Hwang
Scripture Reading	Micah 1:1-2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Hear O Peoples” Rev. Euichang Kim
* Hymn	65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혜(서아사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가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란소아 수레시, 수버식 알로롱, 비시누(밴드, 보디소프, 린롬, 수권준(방글라데시) / 감태식, 윤영호, 이금순, 김경일(군선교) // 정성찬(홍성임(말라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제30권	제5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2월2일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감동 주고 산다 ”

■ 눅 7:1-9

감동은 진실하고 신실한 언행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써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취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솔로몬은 일천 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본문의 내용 또한 그런 것으로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1.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하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로써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삶의 중심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가 살아온 자리에서, 그가 믿어온 자리에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실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기만 해도 감동을 주는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같이 피차에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2.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흙으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무덤 속에 묻히며, 모두 먼지가 되어 흩어질 존재입니다. 흩어진 먼지는 나무와 식물들이 섭취하고 열매가 되며 또 그것들을 동물이나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동물이나 물고기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것을 ‘먼지의 순환’이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져온 진리입니다.

맺는 말

사람이 육체뿐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며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오 늘도 부름받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삶에 기여를 한다면 그 인생은 매우 보람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추수를 할 때면 알곡과 쫄정이를 현저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겸손함과 침묵함으로 섬김의 헌신을 하는 알곡형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이견과 불평으로 편가르거나 하는 쫄정이형 교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여정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일은 진경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익어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영태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박정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송인권 장로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30:4-5... 인 도 자
-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4(시 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9(53)...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미 6:6-8...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아웨 하나님의 요구사항”...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210(245)...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아가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눅 7:9)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40:1-2 인 도 자
 - 찬 송 28(28) 다 함 께
 - 기 도 정완진 집사
 - 성 경 창 14:1-16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길리고 훈련된 자” ... 설 교 자
 - * 찬 송 351(389)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 ### 수요예배
- 오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 기 도 오가연 권사
 - 성 경 막 8:1-10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예수, 생명의 양식 !” ... 설 교 자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 모 임
- 1. 리브가 전도회 월례회 / 2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2. 2월 교구위원회(대상: 교구장) / 2일(주) 3부 예배 후 104호
- 3. 전도위원회 모임 / 2일(주) 오후 4시 엘리베이터 앞
- 4. 정기당회 / 5일(수) 수요예배 후 104호
- ☛ 알 림
-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12.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 13. 세례식 신청 마감 / 2월 세례식이 2월 16일(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2월 2일(주)까지 문답총정리는 2월 9일(주) 오후 1시에 105호실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2월 9일(주) 오후 2시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앞면에서 계속
-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 15.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서창원 목사님(총신대 역사신학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 결 혼
- 1. 이범석 군(5교구 이승래 집사, 김정희 권사의 장남)과 정주원 양(정효교, 김봉자 씨의 삼녀) / 2월8일(토) 오후 12시 20분 호텔베르누이웨딩컨벤션 로비층(1층) 베르누이홀(02-2685-2000) / 1호선 오류동역 3번 출구
- ☛ 장례
- 1. 故 조향숙 권사(6교구 김정란 권사의 모친, 김시환 집사의 장모) / 23일(목) 별세, 25일(토)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754명	196명	151명	1,101명	13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월26일	헌 금	48,792,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		13,920,000
	급 여		33,084,000
	교회학교사례		7,570,000
	특별예배비		1,097,000
	교회학교운영비		2,822,230
	출 판 비		1,25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100,000
	인 건 비		6,072,000
	복리후생비		107,220
	통 신 비		781,410
	수도광열비		689,550
	차량유지비		682,700
	도서인쇄비		18,000
	사무용품비		5,000
	소모품비		168,130
	잡 비		9,000,000
	환경유지비		64,100
	수선유지비		189,270
	식당운영비		863,931
	합 계	48,792,000	105,931,541